

크로아티아선교서신|November 2020

croatia

2020년3/3

김경근/문정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소속
충신교회파송

2020/11/10

자그레브

선교후원

신한은행 56100199999070(총회)
국민은행 045210767245(일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2020년 11월을 맞이하며 여러분들께 선교편지를 전해드립니다.
그 동안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이젠 이런 인사가 너무 피부에 와 닿는 안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구합니다.
서두를 짧게 하고 먼저 이곳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크로아티아 코로나19 상황

지난 2월 이후 시작 된 코로나19는 겨울이 오면서, 더욱 강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봄 한 차례 봉쇄조치를 취한 후, 여름이 다가오면서 모든 조치는 완화되고 해제되었습니다.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일상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서
후 확진자가 늘어나더니, 겨울의 문턱인 현재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과 달
리 개인 자율에 맡기고, 세밀한 역학 조사를 하지 않는 탓에, 이젠 몇 십, 몇 백명이 아니라, 하
루 2~3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도 이에 대한 효과적 대책이 없어 보입니
다. 자그레브 서쪽에 있는 실내 체육관(아레나)이 임시 병원으로 개조되었고, 주변 가까운 곳
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연일 듣고 있습니다.

바깥은 예년에 비해서는 한산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간의 고립과
격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사람들의 활동이 대범해(?)진 것 같고, 얼마 전 보건당국
이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실시했지만, 한국처럼 통제된 조치는 아닌지라(50명 이상 모이는 실
내집회만 금지) 각자가 스스로 조심하거나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
니다. 지금쯤이면 대립절 기간이 준비되고, 성탄 세일이 시작되어 설레고 들뜨는 때이겠지만,
올해는 차분하고 우울한 연말과 성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불안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아이러니하게 평화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산해진 거리에는
사람들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하루의 2,3천명의 확진자가 나타
나고 자그레브에도 500~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매일 있음에도 코로나에 구애 받지 않
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이곳을 한마디로 표현 한다면 평화롭고, 자유하나,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하지
만 겉으로는 표 나지 않기에 더욱 무감각하고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확진자의 동선이 파악되지만, 여긴 그렇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
고, 그렇게 밝혀지는 것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살피고 주의하며 피하는 것
이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이지요. 저희는 주 은혜 안에서 지내고 있으며, 그분의 보호
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찾기 원합니다.



1. 자그레브 한인교회

한인교회는 어제(11월 8일)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 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대면예배로 드러지다, 이곳 상황이 급속히 악화 됨으로써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몇 가지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 수요기도회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말씀뿐 아니라 기도로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공급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주 중에 더 생기게 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믿습니다.

2) 청소년/청년부, 젊은 부부 모임 시작: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아마 올 해 소그룹 모임들이 더욱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코로나라는 변수로 왕성한 사역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모임이 시작되게 되었고, 가다 서다 하면서도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3) 현지인들의 한인예배 참여:

한글학교를 통해 현지인들이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를 장기 사역으로 기도하며, 현지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매주 설교요약도 영문 번역을 하고 섬김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 자그레브 한글학교

지난 10월 23일에 창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가을학기에 60여명이 조금 넘는 학생이 등록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 10주년 창립 기념일에 주 크로아티아 한국대사관의 김동찬 대사께서 학교를 방문하여 책을 기증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을 회고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에 감회가 새로웠고, 지난 10년, 이곳 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한글학교의 상황도 이젠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자그레브 대학 내에 한국어 과정이 한국 국제교류재단을 통해 개설하게 되었고, 또 올해 세종학당이 자그레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젠 저희 학교외에도 전문 한글 교육기관과 과정이 설립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학교도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헤쳐 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어 교수 사역 대신, 학교에서 성경 읽기반을 조직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의 성경 읽기반이 조직 되었으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반을 통해 한인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드리는 현지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 중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가 연계되어 복음 사역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그레브 한글학교

INTRODUCTION TO KOREAN SCHOOL IN ZAGREB

자그레브 한글학교 개교
presents
**10주년 기념도서 기증식
및 교사 간담회**
주 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Join us as we
celebrate our 10th year
since the beginning.
10월 23일, 오후 3시
KNEZA MISLAVA 11

3. 현지사역

군선교회는 지난 10월 초에 '2020 아드리아 인터렉션'(2020 ADRIA INTERECTION)을 주최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숫자가 모였지만,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저는 교회와 학교의 책임자로서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양해를 구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크로아티아 군선교회(MCFC)는 새 다큐멘터리 제작 작업에 들어갔으며 크로아티아 정부와 유럽 연합의 지원을 받아 활발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군선교 대표인 드라젠도 잘 지내고 있으며, 코로나 중에도 종종 만남과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국경의 외부로 제한되고 주변 국가들의 봉쇄령이 다시 시작되면서 슬로베니아 류블라나도 가지 못한지가 이제 1년이 지나갑니다.

매주 그곳에 예배 드리러 갔던 일이 이제 옛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류블라나에 있는 즈봉코 목사가 얼마 전 안부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쪽도 현재 코로나로 인해 여름 어린이 캠프 후에 사역이 중단되었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서 이 시기가 지나고 다시 류블라나에서 만나고 또 그곳 교회와 협력이 재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 김경근/문정미 선교사의 영적 강건함과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학교, 교회, 현지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르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한글학교 학생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카를라)가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학생(멜라니아), 면역 체계 이상으로 고통 받는 학생(이반)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한글학교성경 읽기반 학생들(다비드, 키아라, 이마, 안토니아, 블라즈, 레르카, 레오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아가고 참된 신앙이 자라도록..
- 친형 김재욱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치료와 가정의 회복, 거듭남을 위해서..
-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크로아티아를 위한 섬김과 헌신 이 마르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 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학업과 진로,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요청 드립니다.
- 저희 선교사 부부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 사역 속에서 영적, 감정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여유와 유머, 첫사랑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공의하나 온유함이 함께 동행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